

# “호남오페라단 도립으로 전환하라”



재정난 가중으로 창단 30년 만에 존폐의 기로에 선 (사)호남오페라단은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호남오페라단을 도립으로 전환해줄 것을 건의합니다”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재정난 가중으로 창단 30년 만에 존폐의 기로에 선 (사)호남오페라단은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호남오페라단을 도립으로 전환해줄 것을 건의합니다”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다. 오페라단은 그동안 오페라 소외 지역인 제주도와 강원도까지 초청을 받아 공연을 하는 등 전국 각지를 찾아다니며 전북 고유의 문화를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연들도 전국에서 인기를 모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호남오페라단을 도립으로 전환해서 위기를 극복하면 오는 10월 말쯤 전주와 정읍에서 ‘정읍사’ 오페라를 초연할 예정이며 2018년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 공연작으로도 무대에 올릴 계획”이라고 했다.

▶ 오페라단 존립 위한 도내 예술인들, 호소문 발표

“오페라단, 지역 문화 알리는데 공 세워 전북 판소리 리메이크 ‘논개’ 등 창작공연 전국적 인기 얻어”

“안정적 공연 펼치도록 전북도의 배려 절실”

## 소설가 김지은, 전북작가회의 불꽃문학상 수상



전북작가회의 제9회 불꽃문학상에 김지은 소설가(사진)가 선정됐다. 수상작품은 소설집 ‘누가 무화과나무 꽃을 보았나’ (2016·예곡)으로 ‘개는 어떻게 꿈꾸는가’ ‘소도의 경계’ ‘거꾸로 흐르는 강’ ‘회문’ 등 작가가 30여년 가까이 써 온 중·단편 9편을 엮었다. 작품에는 ‘끊임없이 소리를 내고 있지만 들리지 않는 자들의 소리’와 ‘어

둑고 차가운 곳에서 찾은 만화경 같은 세상’이 담겨 있다. 심사위원단은 심사평에서 “전북작가회의의 창립부터 모임의 불씨를 지켜온 김지은 소설가는 열정적인 마음의 불씨를 담고 그 오랜 세월을 묵묵히 견뎠다는 것만으로도 큰 귀감”이지만 “한 번 큰 불길로 일어나 급세 사그라지는 작가들이 많은 지금의 현실에서, 화로의 숯불과 같이 시간이 지날수록 조용하고 꾸준하게 더 뜨거워 창작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후배들에게 더 모범이 된다”고 평가했다. 김지은 소설가는 “불꽃의 강인함과 순수와 열정을 품고 가라는 격려로 답했다”면서 “내 소설 속 인물들에게도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지은 소설가는 부안 출신으로 전주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은 바 있다. 저서로는 산문집 ‘그대에게 가는 길엔 언제나 바람이 불고’, 휴먼포포집 ‘오십 미터 안의 사람들’, 소설집 ‘두 번 결혼할 법’ 등이 있다. 전북수필상과 작가의 눈 작품상 등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24일 오후 6시 최명희문학관에서 열린다. /정해은 기자

## 군산시, 문화관광해설사 10명 신규 모집

군산시가 문화관광해설사 10명을 신규 모집한다. 지원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지역의 문화유적 및 관광지에 대한 풍부한 식견을 가지고 장시간 도보해설이 가능한 신체건강한 자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선발된 대상자는 도에서 주관하는 신규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모니터링에 최종 통과하면 3개월 이상 현장 실무수습을 거친 후 군산시 문화관광해설사로 정식 활동하게 된다. 문화관광해설사는 군산시의 각 안내소, 동행투어, 시티투어 등에 배치되어 국내외 관광객에게 군산을 알리는 길라잡이 역할을 하게 된다. 모집공고는 군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를 구비해 20일과 21일 양일간 군산시청 관광진흥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홈페이지(http://gunsan.go.kr/) 또는 관광진흥과(☎454-3335)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류정곤 기자

## ‘학생 1악기 연주’ 도교육청 학교예술교육 추진계획 발표

전북도교육청이 ‘학생 1악기 연주, 학생 예술동아리 활성화’ 등이 담긴 2017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학교예술교육은 우선 56개 초중고교에서 추진하고 ‘학교예술교육 지원사업 운영학교’에 대한 내실화를 추진한다. 학생오케스트라 29개교, 학생뮤지컬 7개교, 학교연극회 10개교, 연극동아리 10개교 등 총 56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전문 강사비, 시설과 악기 마련, 공연 참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함께 총 600개 학교에선 국악, 연극, 무용 등 8개 분야에 예술강사와 교육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는 한편 ‘학생 1예술활동’ 기반 구축을 위해 총 50개 학교를 선정해 바이올린, 첼로, 해금 등 현악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단위학교는 예술 교과(군) 수업 시수와 이수 단위 편성, 운영을 철저히 해야 하며 실제 운영이 다르지 않도록 교육과정을 준수해야 한다. 초등학교에는 전공자나 심화과정 이수자를 중심으로 음악, 미술 집단 교사를 지정해 운영한다. /정해은 기자

## ‘꽃보다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예술 나눔’ 도립국악원, 14개 시군 복지시설 방문 공연

전북도립국악원(원장 신동원)은 도내 소재 기업과 함께 ‘꽃보다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예술 나눔’을 주제로 한 공연을 펼친다. 공연은 평소 전통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문화소외계층의 정서 함양과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복지시설에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공연으로 14개 각 시·군별로 1회 이상 공연을 목표로 진행된다. 국악원은 사전 수요조사 및 신청접수를 받아 1차로 10개 시설을 선정했다. 공연은 총 20여 차례 진행 예정이며, 16일 군산 노인종합복지관·익산 한마음주간보호실 공연을 시작으로 전주·원주·임실·순창·진안·장수·고창·정읍 등에서 열리게 된다. 국악원은 오는 7월·12월에는 지역을 추가 선정하여 도내 전 지역으로 공연을 확대 할 계획이다. 무대에는 25명 규모의 공연 팀이 올라 전통민요 배우기, 국악중주, 창작무용, 가야금병창, 판소리, 타악 등을 선보인



다. 신동원 원장은 “지난해 공연을 관람한 복지시설들의 확대요구와 관객들의 높은 호응을 반영하여 ‘복지시설공연’을 기존 14회에서 20회로 대폭 늘리게 되었다. 올해에도 예술로 만드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공공예술기관으로서 책무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 완주군, 전통한옥 운영 지원사업 2년 연속 선정

완주군은 1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2017년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공모에서 대승한지마을 한옥전통문화체험관이 2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통한옥 운영 지원사업은 전통한옥을 한국 고유의 전통체험숙박시설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전통문화(예술)공연(체험) 등을 연계 운영해 한옥체험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과 질적인 향상을 도모한다. 이번에 선정된 대승한지마을은 기금 1800만원과 군비 900만원 등 총사업비 3000만원으로 다양한 한옥공예체험과 한옥숙박체험을 연계, 체험학습 및 기관단체의 워크숍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김재일 관광체육과장은 “대승한지마을은 세계적으로 명성이 뛰어난 고려지(紙)의 원산지로서 전통한지생활문화체험관을 활용한 한옥숙박체험과 한지체험이 가능한 곳이다”며 “체험객들이 한옥숙박과 한지체험을 통해 전통문화의 향수를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에는 대승한지마을 한옥전통문화체험관 뿐만 아니라 한옥숙박과 전통놀이체험이 가능한 완주 전통문화체험장(고산면 소재)이 있어 다양한 한옥체험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갖춰져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 띠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7년 2월 16일)

▶ 쥐띠 48년생: 명변경과 같은 문서와 관련된 일을 하기에 좋은 운이다. 60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운. 72년생: 이성으로 인해 구설이 따른다. 84년생: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 소띠 49년생: 신경 쓸 일들이 많아서 마음도 몸도 분주한 날. 61년생: 부지리로 생각지도 않게 얻는 것이 있을 것이다. 73년생: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된다. 이를 따르면 이익이 되니 현명한 판단을 하라. 85년생: 건강에 주의해야 하는 운. 섭생을 주의하고 건강에 신경써라.

▶ 호랑이띠 50년생: 동기간과의 다툼에 주의하라. 62년생: 겉으로는 호의를 베푸는 듯 보이나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주의하라. 74년생: 상대방과 불화가 예상되니 언쟁은 피하라. 86년생: 외부적으로 움직이면 이익이 생긴다.

▶ 토끼띠 51년생: 문서에 길성이 들었으니 문서를 주고 받는 일에는 좋은 운이다. 63년생: 정신이 혼미하니 흑역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75년생: 이성으로 인해 관련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 87년생: 구설수가 따르는 운이다.

▶ 용띠 52년생: 덕을 쌓으면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니 베풀어라. 64년생: 원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순조로운 하루가 된다. 76년생: 눈앞에 고지가 보이니 전진하면 좋은 결실을 얻는다. 88년생: 인간 관계를 넓힐 수 있는 운이니 적극적으로 표현하라.

▶ 뱀띠 53년생: 처음에는 힘드나 후반에는 좋은 일이 생기니 급하게 처리하지 마라. 65년생: 여성으로써 재물을 이룬다. 77년생: 악행이 있는 운이니, 일이 잘 풀리지 않으니 잠깐 쉬면서 관망하라. 89년생: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마라. 타인과의 불화가 예상된다.

▶ 말띠 54년생: 처음에는 좋으나 나중에는 틀어진다. 일찍 움직이고 둘러서라. 66년생: 좋은 일하고 뺨맞는 격, 나서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78년생: 금전운이 약하다. 투자가 투기는 금물. 90년생: 뒷사람의 조언을 받으면 의외로 쉽게 풀린다.

▶ 양띠 55년생: 정신적으로 맑지 않은 운이다. 67년생: 이성으로 인해 오해 받을 만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 언행에 주의해야 하겠다. 79년생: 약간의 구설이 따르는 운이나 자연스럽게 오해가 풀리게 된다. 91년생: 금전운이 약하고 출타하면 생각하지 않았던 지출이 생긴다.

▶ 원숭이띠 56년생: 문서로 인하여 구설이 발생할 수 있는 운이니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68년생: 외로운 마음이 드는 시기다. 80년생: 먼저 베풀면 베풀 것보다 큰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92년생: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라.

▶ 닭띠 57년생: 금전적으로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운이다. 69년생: 하고자 하는 일을 밖으로 크게 추진하지 말고 안에서 작게 움직이면 좋다. 81년생: 기혼자에게는 부부불화, 미혼자에게는 인연이 생길 수 있다. 93년생: 추위로 인한 질병, 특히 기관지에 유의해야 할 운이다.

▶ 개띠 46년생: 손해를 부를 수 있으니 사사로이 감정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58년생: 완고한 행동으로 인해 손해가 따르니 주의하라. 70년생: 문서에 길운이 들었다. 문서를 주고 받는 일에 아주 좋은 날. 82년생: 다 되었다고 생각한 일이 끝에 가서 틀어질 수 있다.

▶ 돼지띠 47년생: 외부는 평탄한 듯하나 내적으로는 불안하니 큰일은 도모하지 마라. 59년생: 먼저 베풀면 후에 얻게 된다. 71년생: 뜻밖의 귀인을 만나게 된다. 83년생: 금전을 빌려주거나 투자는 좋지 않다.